



최후에 오는 승자가 되기 위해 가는 길은 쉽지않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동계훈련에 돌입한 장성군청 조정팀에 주변 산이 눈으로 뒤덮인 장성호에서 올 시즌 전국 정상을 향해 하루 6시간씩의 고강도 훈련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또한 국가대표 조정팀도 지난 4일부터 장성호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亞대회 금빛물살 장성호서 예행연습

## ■ 장성에 동계훈련캠프 차린 국가대표 조정팀

한국 국가대표 조정팀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표로 장성호에서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장성호 조정경기장에 겨울훈련캠프를 차린 대표팀은 하루 8시간씩의 고강도 훈련을 소화해 내고 있다. 이번 전훈련팀은 남자 선수 6명, 여자 4명과 코칭스태프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이 장성을 찾은 가장 큰 이유는 장성호가 겨울에도 좀처럼 얼지 않는다는 것.

지난 2003년부터 대표팀을 이끌어 오고 있는 장현철(39) 감독은 “장성호는 겨울

을 키우고 있다. 장 감독은 “대부분 조정을 상체운동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체 운동이다. 그래서 사이클링으로 하체 근력 단련에 주력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6일 훈련 1일 휴식으로 주간계획을 세운 대표팀은 쉬는 날엔 광주나 인근 시·군을 돌며 관광도 즐긴다. 토요일엔 백양산이나 무등산 등산 훈련 계획도 잡혀있지만 최근 많은 눈이 내린 관계로 실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표선수들 중에는 장성호가 낯설리만 방처럼 포근하게 느껴지는 선수들이 있다.

광주·전남 출신 김휘관·김명신 등 12명  
낮엔 노젓기 밤엔 웨이트 하루 8시간 맹훈련  
장현철 감독 “한파에도 호수 얼지않아 훈련지 적합”

에 얼지않고, 바람도 적게 불어 수상종목의 훈련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면서 “이곳보다 더 따뜻한 진주지역도 지리상의 영향으로 호수면이 얼어 제대로 훈련하기 어렵다”고 장성호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경기장 주변 경관이 뛰어나고 공기도 좋아 훈련에 지친 선수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점도 전훈지 낙점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런 이유로 대표팀은 지난 8년 동안 네차례나 겨울훈련을 위해 장성에 캠프를 차렸다.

대표팀은 이번 훈련기간 중 체력증진에 주력하고 있다. 오전엔 지상에서 노 젓는 훈련을 반복해 실시할 수 있는 장비를 활용하고, 오후엔 기초체력단련으로 웨이트와 러닝 등을 실시한다. 특히 오후엔 사이클링으로 하체 지구력

을 키우고 있다. 장 감독은 “대부분 조정을 상체운동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체 운동이다. 그래서 사이클링으로 하체 근력 단련에 주력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휘관은 “고향에 내려오니 훈련 부담 없이 마냥 편안한 느낌이다. 쉬는 날 동료들과 함께 외출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가이드 역할도 하고 있다”고 전훈 소감을 밝혔다.

짧은 선수들로 세대교체를 단행한 조정 대표팀은 올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990년 북경아시안게임과 1994년 히로시마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에 그쳤던 장 감독의 금메달 꿈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조정국가대표팀이 장성호 조정경기장에서 노 젓는 연습기구인 로잉 머신(rowing machine)을 이용해 실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최경주 ‘부활샷’ 정조준 오늘 밤 소니오픈 출격

## 메인스폰서 없어 모자에 태극마크

한국골프의 간판 최경주(40)가 새로운 마음으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에서 새 출발 한다.

지난 해 PGA 투어를 우승컵 없이 보냈던 최경주는 메인스폰서였던 나이키와 계약도 끝나면서 쓸쓸하게 새해를 맞았다. 하지만 14일(이하 한국시간) 밤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와이알라이 골프장에서 개막하는 소니오픈에 출전하는 최경주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다.

우선 지난 시즌 내내 괴롭혔던 허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하와이로 건너와 두차례 연습라운드를 하면서 2008년에 우승했던 코스의 파악도 완전히 마쳤다.

지난 겨울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후배 배상문(24·키움증권), 김대현(22·하이트), 이진명(20·클러웨이) 등과 함께 훈련하며 쇼트게임과 벙커샷을 가다듬었다.

나이키와 계약이 끝나면서 새로운 골프 장비로 무장한 최경주는 새로운 스폰서를 구할 때까지 모자에 태극기를 달고 대회에 나선다.

최경주는 “첫 대회지만 마음을 완전히 비웠다. 큰 욕심을 내지 않고 ‘톱10’을 목표로 출전한다”고 말했다. 최경주의 매니저인 임만성 씨는 “최경주 선수가 자만하지 않으려고 높은 목표를 잡지 않았지만 현재 몸 상태는 최고여서 이번 대회에서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최경주는 15일 오전 7시20분 10번홀에서 루크 도널드(잉글랜드), 체즈 리비(미국)와 함께 티샷을 한다. 하와이대회에 2주 연속 출전하는 양용은(38)은 15일 오전 3시 디펜딩 챔피언 잭 존슨, 데이비스 러브 3세(이상 미국)와 동반 플레이를 펼친다.

재미교포 나상욱(27·타이틀리스트)은 15일 오전 3시30분, 위창수(38·테일러메이드)는 오전 2시30분 티오프한다. /연합뉴스

# 대박난 ‘샤라포바’

## 나이키와 786억에 8년 계약



여자프로테니스(WTA)의 미너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14위·러시아)가 여자 선수 사상 최고액인 7천만달러(약 786억원)의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샤라포바가 세계 최대 스포츠용품 업체인 나이키와 8년간 7천만달러에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샤라포바의 이번 계약은 지난 2000년 테니스 스타 비너스 윌리엄스(1위·미국)이 리복과 계약할 당시 조건이었던 5년간 4천500만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또 계약 조건 중에는 샤라포바가 직접 디자인한 의상 라인업을 출시하는 것이 포함돼 있으며, 샤라포바에게 수익금 중 일부가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나이키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을 거부했다.

샤라포바는 지난해 2월 어깨 부상을 돌아온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대박’을 터뜨리게 됐다. /연합뉴스

# 돌아온 ‘F1 황제’

## 슈마허, 3월 개막전 시뮬주행 완료



4년 만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러 원(F1)에 복귀하는 ‘F1 황제’ 미하엘 슈마허(독일)가 시뮬 주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AP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슈마허는 13일(한국시간) 스페인 헤레스에서 열린 GP2 테스트 세션에 참가해 서킷 52바퀴를 돌며 몸을 풀었다.

GP2는 F1보다 한 단계 정도 낮은 등급의 대회로 평가받는 레이스로 많은 드라이버가 GP2를 거쳐 F1으로 진출하곤 한다. 약천후로 계획보다 일찍 시뮬 주행을 마친 슈마허는 “오랜만에 포뮬러 차를 몰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내 감각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자신했다.

2006시즌을 끝으로 은퇴했던 슈마허는 F1에서 7차례 종합 우승, 총 91번의 레이스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F1의 전설로 통했던 선수다.

슈마허는 14일, 15일에도 계속 시뮬 주행에 나서며 시즌 개막을 준비할 계획이다. 2010 F1 시즌은 3월14일 바레인 대회부터 11월14일 아랍에미리트(UAE) 대회까지 모두 19라운드에 걸쳐 진행된다.

10월24일에는 전남 영암에서 사상 첫 한국 F1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 올 체육진흥기금 5,300억원

### 광주 U대회·전남 F1 등 지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김주훈)이 올해 체육진흥기금 5,300억원에 이를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기금 5,300억원에 이를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해 기금지원 규모가 지난 해 3천923억원에서 35% 가량 증가된 5천300억원에 이를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국내 개최 국제대회인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5광주하계U대회, 영암 F1대회 준비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22축구월드컵 유치활동 등에 총 1천91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지원하게 된다.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과 종합훈련원 건립, 체육인 복지 등 전문체육 육성에는 1천710억원을 지원하고 생활체육 육성에는 1천701억원을 전달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밖에 장애인 체육육성(223억원)과 스포츠산업 및 학술분야(387억원)에도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